

신행수첩

불자로 태어나는 의식 조계사등 가을수계법회

불자들이 참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수계법회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사찰과 신령 단에서 거행되고 있다. 서울 암사동 동명사(주지 지명)는 10월30일 오전10시 제1회 보살수계법회식을 실시한다. 서울 조계사(주지 연근)도 11월9일부터 3일간 보살수계산립법회를 개최한다. 동명사 계사는 혜당스님이며 조계사 계사는 혜정스님이다.

보살계란 대승의 보살들이 받아 들이는 계율이다. 10경대 계와 48경계 등이 있다.

불자라면 마땅히 계를 받아야 한다. 계를 받았을 때 비로소 부처님 제자로서 자긍심을 갖게 된다. 예로부터 큰스님들은 '앉아받고 서서 파할지라도 계를 받아야 한다'며 수시로 계 받기를 권장했다.

수계는 계사스님을 모시고 연비의식으로 진행한다. 계사스님의 증명으로 불자됨을 허락 받고 불명을 받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서 연비를 향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이처럼 계를 받아야 비로소 불자로 다시 태어난다. 고려시대에는 임금들도 정기적으로 보살계를 받았다 한다. 계를 받지 않았거나 이미 계를 받은 불자라도 올 가을엔 가까운 수계사찰을 찾아 불자로서 다시 태어나자(동명사 427-7088 조계사 420-1389)

금니 법화경등 보물 친견 조계사 학생회 광덕사서

봄이여여 여행은 건문을 넓히고 인격을 완성하는 훌륭한 방편이다. 조계사 종교학생회(회장 조성현)는 30일 가을 정기사찰순례를 천안 광덕사에서 갖는다. 사찰순례는 신심까지 높일수 있어 청소년 불자들에게 중요한 신령으로 자리잡고있다. 어느 사찰을 누구와 함께 찾느냐도 중요할 것이다. 단지 사찰해례를 끝낼것이 아니라 사찰에 담긴 의미와 역사를 현장에서 찾아보는것은 살아있는 교육이 되기 때문이다. 조계사의 이번 사찰순례에는 종문스님이 이끄는 법사단과

교사단,학생회 회원,동문들이 동참한다. 조계사학생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중 고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권해본다.

광덕사는 28방 89암자가 있었다는 관덕산 기슭에 자리해 있다. 신라 흥덕왕 7년(832년) 진산화상이 창건했다. 금자 사적기와 새조어첩등의 귀중한 보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고려 말기의 사령으로 추정되는 금은자 법화경(보물 제390호),진산화상부도(지방유형문화재),3층석탑(지방유형문화재 제120호),천불전 후불탱화등의 많은 예술품이 있다.



10천인 호도의 기원으로 알려진 관덕사

은 문화재가 있다. 특히 절마당에 있는 호도나무는 유명한 천안호도의 시조로 삼백여년의 눈길을 끈다.(734-8179)

가을밤의 찬불가 공연

대한불교·정통사·법안정사 등 13개 합창단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향을 사루고 예불하는 정성으로 음성공양을 올린다. 11월5일 오후 7시 KBS홀에서 열리는 '94 불교음악의 대향연'에는 불교계 작곡가들의 창작곡이 가을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에는 고소화, 김희진 외 4명의 독창과 정유녀, 김희경외의 지휘로 불교합창단의 화음이 울린다.

팔만사천 부처님 석왕사 2차 집안

팔만사천 부처님을 모시는 집안식이 거행된다. 경기도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오는 10일 오전9시 석왕사 대웅전에서 창건 18주년 기념법회를 갖는다.

석왕사는 1976년 창건돼 18년 동안 불교 취락지역인 부천 지역에 유치원, 탁아소, 지역신문에 이르는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해 왔다. 석왕사는 현재 신도수 3만명이 넘는 대사로로 성장한 불교계 도심포교의 모범사찰로 인정받고 있다.

돌부처님 미소나눔 경주남산 불적당사

'한국불교의 참모습을 보여 거든 경주남산 돌부처의 미소를 보게하라'는 말처럼 신라고도 경주는 우리 불교의 포근한 고향이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불교학생회와 동학생회 종교부, 남산 불적당회는 11월4일 오전 9시부터 경주남산에서 신라문화유적답사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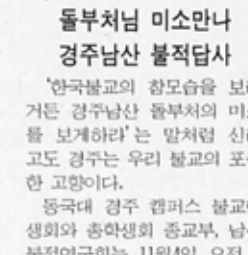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젊은이들에게 우리문화의 원류인 경주의 전통과 혼을 체험해 해 새로운 겨레의 응시를 촉구하기 위해 계획됐다.

경주 수호자로 알려진 윤경달선생의 안내로 사천왕사지능지대 중생사 황백사지 황룡사지 분황사 안압지 굴굴암 기림사 감은사지 대왕암 이천대 등을 답사, 불교문화에 담긴 옛 선조들의 불심을 재확인한다.

1만 연등에 불밝혀 대각국사 탄신기려

1만연등에 불을 밝히는 만등법회가 11월 1일 승주 선암사에서 열린다. 대각국사의 탄신939돌을 기리는 이번행사는 전통다려의식으로 시작해 보살기도 병행한다.

의천스님은 문종의 네째 아들로 선종의 동생이며 인예왕후를 어머니로 1055년 태어났다. 11세에 영동사로 출가하여 1085년 송나라로 유학, 14개월만에 3천여권의 경전을 가지고 귀국했다.국형사에서 천태교학을 강의했으며 이는 고려불교의 사



대각국사 의천 진영

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스님은 1101년 나이 47세 법랍 36년으로 입적했다. 선암사는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백제고찰 의천스님이 중창한 종합 수도도량으로 정통을 잇고있다. 특히 절입구에 있는 승선교(보물 제400호)는 석조예술의 극치를 보이는 아취형 돌다리로 주변의 경관과 어울려 참배객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선암사 0661-54-5247>

나의 수행일기



공종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는 영접 불자일지 모른다. 집에서 다니는 은광포교원에 열심히 찾아가 부처님께 예배하는 처지도 아니고, 주지스님을 찾아보고 절 살림을 함께 걱정하는 열심신도도 못되는 때문이다.

그렇다고 집에서라도 부처님을 모셔놓고 매일 1백배를 올리거나 하루에 얼마라도 선경삼매에 들어 불심을 깊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따라다니며 내 행동을 관찰하고서 나를 불자라고 칭찬할 수 있겠는가 무척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근년들어 내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은 물론 사회각계에서도 나를 불자로 인정하고 불림없는 불교인의 반열에 넣어준다. 그리고 나 자신도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 신앙을 밝히는 나의 종교관이 거침없이 '불교'라고 쓰게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80년대 중반이후의 일일 것이고 특히 <정환기의 한국불교>를 출간한 1987년 이후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믿어진다. 이제는 <물아얌은 부처>니 <이 땅의 쇠부소

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다. 내 결이 아니라 바로 내안에 계신 부처님을 항상 잊지 않으려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내 삶을 지탱하는 열심신도도 못되는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내 신행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할 것이다. 어렸을때 신심깊었던 어머니를 따라 보살전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하던 시절이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부처님께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수없이 절을 하던 고교생시절도 있었다. 그리고 대학에서 철학을 배우며 불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어떻게 깊숙하게 되었던 시절을 거쳐 매스콜에 투신한후 불교의 현실에 침잠

한 분노를 느껴야 했던 종교당담기 자식질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종교인 불교를 되살리는 길은 다른 누구인가 내 자신이 불교를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가능할 것이라는 오만에 가까운 사명감을 다지던 시절도 있었다.

바로 그런 오만으로부터 불교의 타락 신앙적 측면을 무시하고 오직 자리에 의한 깨달

염주 팔에 감고 잠드나 아직 0점

리)니 하는 불교관계 컬럼집을 계속 펴낸다는 나를 불교와 무관한 사람이거나 불교의 현실을 냉정히 비판한다고 했어도 글 속에 담겨있는 불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내 속마음이 곧바로 드러나게 될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신행과 수행이 어찌되었건 상관없이 내가 불교인으로 인정된 것은 바로 내 글을 통해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나의 불교신행이나 수행생활은 아무래도 좋다고 할 수도 있다. 나는 등산길에 산사에 들르게 되면 우선 부처님을 보고 오세부처하며 그 부처한 자비와 지혜의 힘을 구한다.

그리고 혹 내가 세상의 사물을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힘을 얻으며, 혹 내가 막강한 세력의 위협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처님의 기도를 기원한다. 그리고 나는 내자신이 결승하고 주의깊게 살아가지만, 혹 위엄이 있거나 장애가 있더라도 이를 과감히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다. 내 결에는 늘 부처

들이 올다는 확신을 가진적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불상에 흠여 열려 할하고 보살상 앞에서 손을 비벼대며 일심은 기도하는 아내네를 딱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대웅전 아닌 칠성각과 삼성각을 그토록 소중하게 지키는 스님들을 경멸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내게 불어닥친 할망한 아픔도 겪어야 했던 나는 작은 불살앞에 경건히 기도하기도하고 허공을 향해 무엇이 절을 하는 저들의 진심에 경의를 표하고 그 성의에 감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절에 가면 부처님께 들 어있드려 절을 올리고, 그 부처한 자비와 지혜를 찬탄하게 되고 가능한 중생이 부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복되게 살게되기를 기원하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이 학교를 향하는 것을 보면 반야심경을 외우며 잠자리에 들때에도 부처님과 함께 있기위해 염주를 팔에 감으며 마음을 가다듬는 내자신이 되었다. 그런 삶이기에 보잘것 없는 이승의 삶이지만 부디 부처님이 늘 내안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바로잡습니다

본지2호 2·3면 '항간을 축하 해주신 분'명단중▲김동규 전 새한국당 대표는 정의원으로 ▲구천서 정의원은 정의원으로 ▲대한불교 관음종 사무총장 이흥과는 총무원장으로 바로 잡습니다.화환에 ▲한국CTS 대표이사 김규식 추가합니다.

계시판

▲통신생 모집=강원불교대학(학장 권복운)은 주,야간 통신과정 신입생을 11월15일 까지 모집한다. 전형은 17일이며 강의는 불교의 교양사상 철학 일반교양등의 교과목이 진행된다.(0361-51-5040)

▲카운슬러대학=자비의 진화는 제8기 카운슬러대학을 11월21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진행한다. 수강료는 6만원. 교육기간동안 자비의 진화는 성 훈따지기 강좌를 함께 강의 한다. 강의는 매주 화,목요일이며 수강료는 3215천원.(737-7378)

▲승려부인회 연수교육=태고승려부인회(회장 조요련화)는 11월 7일 ~ 9일까지 수유리 소재 통일연수원에서 제2회 연수교육을 갖는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성직자 도반으로서의 대사회 봉사활동의 기

를 공부하기로 했다. 모집인원은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각각 60명씩이며, 원서접수는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925-5507)

▲부처님아름 개원 10주년=경북 경주 소재 부처님아름(춘장·도문)은 11월 5일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풍곡도호빈 푸비원에서 개최한다. 6일 오전에는 법당 불불식을 봉행하고 오후에는 발원자인 천북면 원효사에서 기념비 제막식을 갖는다. (0561-745-3285)

▲신앙식기자 11월13일 화혼=신앙식기자(한국불교신문사)가11월13일 오후 1시 전남 담양 버스타미날 열 담양군민 회관에서 박경희양을 신부로 맞아 화혼을 밝힌다. 담양버스 출발:한성대 정철역 8시 (743-8005,745-1611)

은 휴양하거나 공부하면서 여생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보살들에게 좋은 방사를 준비하여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기도정진과 함께 한달에 2회 지도입과 무료 기공전도도 받게 한다. (0334-74-3578)

▲중앙승가대 신입생모집=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은 9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고 12월 5일부터 원서

를 다진다.

▲시인불교교사 후보추천=마산 광원불교연합회부설 시인 불교문화상 운영위원회(상임위원장 지안스님)는 제4회 시인 불교문화상 수상자 후보추천 접수를 받고있다. 후보지역은 불교와 지역문화향상에 기여

생활 속의 불교 ③

“집을 지을 줄 모르는” 목수가 있다면?

유능 한 목수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설계를 하고 설계한 대로 집을 지어 들어가 살 수 있다. 단칸 초막을 짓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고대 궁실을 짓고 싶으면 또 그렇게 지어서 집주인으로 들어가 산다.

우리 육신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누가 설계를 했고 누가 들어가 사는가. 들어가 살기는 분명 내가 들어가 산다. 그렇지만 나는 내 집을 마음대로 설계하지를 못한다. 설계는커녕 어디가 고장났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아낸들 제 손으로 고치지도 못한다. 제 집인데도 제 맘대로 못한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주인 자격이 있는가. 내 집 하나도 내 의지대로 이렇게 지르게 할 수 없대서야 멋있게 주인이랄 수 있는가.

도대체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 한 의문과 연루된 삶의 비밀을 캐내지 않으면 안된다. 불법은 그 해결의 실마리다.

한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 86년 3월 설립
- 대형 건설업체의 취약부분인 고질적인 방수 하자 보수공사 성공리 완료
- 설립 7년 만인 93년 연간 약 46억의 공사 가능
- 신방수공법, 특수도장 부문 등 건설회사로부터 각종
- 100% 직영 처리
- 기술 및 안전에 관한 철저한 교육 실시
- 회사 설립 이후 철저한 무사고 시공!

목표는 국내 최고!!

성흥산업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번지의 29